

다산포럼



박진
상시대 명예교수·다산연구소이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국지의 작가로 나관중(羅貫中)을 떠올린다. 그리고 책이나 읽었다는 사람이라면 역사서 '삼국지' (三國志)의 작가가 진수(陳壽)이고, 소설 '삼국지연의' (三國志演義)의 작가는 나관중이라는 것쯤은 안다. 그러나 나관중은 '연의'의 창작자라기보다 편찬자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연의가 한 사람의 손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唐)나라 때부터 아담(野談) 형식의 삼국지가 유행했고, 송(宋)대에는 직업적인 이야기꾼들의 화본(話本) 속에 섞여 있었으니 그것이 이른바 화본소설이다. 그 뒤 평화소설로, 장회소설(章回小說)로 연의의 틀이 갖추어졌다. 말하자면 연의는 진수의 삼국지와 배송지(裴松志)의 주(注)에 수집된 야사(野史)와 잡기(雜記), 화본소설과 평화소설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다.

연의의 초기 판본은 가정(嘉靖) 원년(1522년)에 출간된 '삼국지통속연의'이다. 이를 명(明)나라 말기 이탁오(李卓吾)가 나관중본과 통속 연의를 통합·정리하였고, 청(淸)나라 모종강(毛宗崗) 부자(父子)가 앞선 판본들을 모아 손질함으로써 그 예술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당대의 입급 문장가들이 이탁오와 모종강 부자가

민중의 마음을 엿보다-삼국지 읽기

나관중본을 바탕으로 여러 판본을 통합·정리하여 줄거리가 탄탄한 연의체 소설로 탄생시킨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삼국지연의'는 거의 모종강본인데 독자들의 폭발적 반응으로 중국 3대 기서(奇書: 삼국지·수호지·홍루몽)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연의에 등장하는 인물이 줄잡아 400여 명, 중요 인물은 300여 명이며 핵심 인물만도 100여 명이다. 실로 엄청난 인적 자원이며 스케일이다. 그리고 인물들의 활약상을 평가하는 데 인용한 사편(辭編)만도 205여 편으로, 어떠한 선택이 역사에 부합하는 올바른 인간형인가를 감동적으로 그려내는 배경 자료로 이용했다. 청대(淸代)의 장학성(章學誠)이 "연의는 7할은 사실이고 3할은 허구여서 읽는 사람의 눈을 어지럽힌다"라고 지적하였듯이 소설적 흥미를 북돋우기 위해 가공된 사실도 끼워 넣었다. 그뿐이 아니다. 주자(朱子)의 촉한정통론(鐵鉉正統論)을 빌려와 유비(劉備)를 주인공으로 조조(曹操)는 교활하고 잔인한 통치자로 전락시켰다.

연의와 달리 서진(西晉)의 진수가 쓴 '삼국지'는 후한(後漢) 때 위(魏)·오(吳)·촉(蜀)의 60년 역사를 기술한 정사(正史)이다. 그는 여기에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지상에는 두 임금이 존재할 수 없다' (天無二日, 地無二王)는 정통론(正統論)을 제시하였다. 정통론이란 천하에 임금이 둘일 때 누구를 정통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다. 사실 정통론은 중국의 역대 사가(史家)들에게 일대 논쟁을 일으킨 사관(史觀)으로, 훗날 동아시아 여러 민족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굴종을 강제하게 되는 역사관이기도 하다.

천하를 통일한 왕조는 자동으로 정통에 속하지만 여

러 개의 정권이 동시에 등장할 때는 적통을 결정하기가 난감한 게 현실이다. 근대 계몽기 사상가인 양계초(梁啓超)는 "천하에는 하루도 군주가 없을 수 없고 백성들에게 두 임금이 병존(並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 때문에 정통론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는 특정한 나라에 정통을 주려는 데서 생긴 결과다"라는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중세사회에서 왕조 본위의 역사 기술상 정통론은 역사 기술의 기준 즉 기년(紀年)을 세우기 위해서도 불가피했지만, 그보다는 자기 소속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정통론의 도입이 절실했었다. 이러한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진수는 조조(曹操)를 정통으로 인정하였고, 나관중은 유비(劉備)를 정통으로 삼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고전 읽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 정통론은 중국 중심주의에서 출발한 세계관임을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화이사상(華夷思想)으로 고착되어 중국 이외의 민족들을 오랑캐로 멸시하고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넣으려는 이념적 틀로 작동하였다. 정통론은 안으로는 자기 소속 왕조에 대한 의리의 실천이며 밖으로는 강력한 중국 중심주의 세계관의 구축이다. '천하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자신의 역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황제(皇帝)를 주변 국가들도 받들고 섬겨야 한다는 지배의식의 강화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것이 중국 역대 사가(史家)들의 머릿속에 숨어 있는 정통론의 본얼굴이다.

'젊어서는 수호지를, 나이 들어서 삼국지를 읽어서는 안 된다'(少讀水滸, 老不看三國)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연의가 가진 엄청난 문학적 흡입력을 설명한 구호인 바, 삼국지연의는 그러한 책이다.

수필의 향기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열차는 밤에 타야 제맛이다. 어느 시인의 시구절처럼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프도 다 설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친 사람들의 표정을 한없이 무겁다. 캄캄한 어둠 속을 질주하는 기차에서 어찌면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혼돈 속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지 모른다.

영화나 드라마 마지막 장면이 기차인 경우가 많다. 폭주하는 기차, 어둠, 그리고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스릴 만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끝 모를 어딘가로 가는 절박한 심정과 병치시키기에 맞춘다. 그래서 여행할 때면 일부러 밤 열차를 탄다. 삶이 지루해서 졸릴 때면 기차처럼 폭주해 보고 싶고, 누군가가 미치도록 보고 싶으면 요란한 기적소리처럼 차창 밖으로 목이 터지도록 그 사람을 호명해 보고 싶어 밤 열차에 몸을 싣는다.

그 옛날, 배고픈 찻차를 싣고 떠난 남행열차는 둘째가 크자 방직공장으로 싣고 갔다. 두바는 사바를 동네문시장 정터 끈으로, 사바는 나디나를 싣림동으로 오디나를

남행 열차

청량리로 데려갔다.(두바는 둘째 아들, 사바는 셋째 아들, 나디나는 넷째 딸, 오디나는 다섯째 딸을 뜻하는 진도 토속어이다) 어머니나 홀로 남겨두고 모두 데려간 남행열차, 난 그 남행열차를 탄다. 그래서인지 열차를 탈 때면 절로 슬퍼진다. 기차는 칸마다 낭만과 귀향의 꿈을 싣고 달린다는데, 유독 남행열차는 슬픔을 싣고 달렸던 것 같다. 슬픔의 무게 탓일까. 느릿느릿 가는 남행열차에는 가난과 서러움이 터져터져 묻어나는 것 같다.

84년 초여름 광주역에서 입영열차를 탔었다. 몇 해 전 5월, 전남대에서 총알을 피해 광주역 철로 사이로 허겁지겁 도망쳤던 내가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총을 들려고 간다는 게 참으로 서글웠다. 그래서 근대 생활 내내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요'는 김수희의 '애모'를 따라 부르며 슬픔을 붙잡았다. 우리 부대원들도 구슬픈 애모를 군가처럼 씩씩하게(?) 따라 불렀다. 남행열차는 그때, 나온 노래이다. '비 내리는 호남선'이나 '목포의 눈물'과 가사는 유사하나 리듬은 빠르고 경쾌하다. 슬픈 내용을 밝은 울동으로 잘 감춘 노래다.

그래서 친구들과 술 한 잔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면 누구 할 것 없이 '만날 순 없어도 있지는 말아요' 하면서 목이 터지도록 남행열차를 불렀다. 막걸리집에서 자취방에서 심지어 야구장에서조차 남행열차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남행열차에는 서정적 소재가 칸칸이 실려 있다. 비, 기적소리, 흔들림, 눈물, 만날 수 없는 사랑까지 통속적 어휘는 모두 싣고 달린다. 삶이란 통속적인지 모른

다. 눈물과 사랑이 없는 삶이 어디 진짜 삶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랑했고, 다시 만날 수 없고, 잊지 말아 달라는 당부가 구슬프다. 연인의 행복을 빌어주는 세레나데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눈물이 흘러나왔다. 내 몸 어딘가에 숨어 있는 연인, 아니 5월이 남행열차 노래에 깨어 눈을 뜨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무얼 하느냐고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목이 터지도록 외쳤던 만큼이나 오랫동안 침묵했고, 치열하게 싸웠기에 많이도 죽었고, 너무도 사랑했기에 철저히 미움을 받았던 5월,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만날 순 없어도, 만날 순 없어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만날 수 없으며, 잃어버린 첫사랑은 어쩌면 5월의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 모두 목이 메도록 부르고 있는 지 모른다.

그 많던 금지곡 속에 길 법도 한데, 너무 평범한 대중가요로 위장을 해서, 그들의 총칼을 피해 시민들 속에 위장해 있는 시민군 같기도 하다. 하여간 웃어도 웃음이 아니고 울어도 눈물이 아닌 노래가 있다면 남행열차일 것이다. 몸을 흔들어도 춤이 아니고, 웃어도 즐겁지 않은, 아무리 부르지 말아야겠다 다짐해도 저절로 터져 나오는 노래, 남행열차는 또 다른 남도의 노래, 오월의 노래는 아니었을까.

악다구니를 쓰며 부르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남행열차는 노래가 아닌 몸짓이고 몸짓이기에 전에 사람이었다. '만날 수 없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말이다.

광주의료원 설립, 지역 의료격차 해소 기여해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약사회와 치과의사회 등 시민 의료단체가 주축이 된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에 시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다.

광주시는 2019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전국 70개 권역을 토대로 광주를 서구·광산구와 동구·남구·북구 등 2개 권역으로 나누고 동구에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동·남·북구를 제외한 서구와 광산구 4개소를 광주의료원 후보지로 선정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단순히 2개 권역이 아닌 3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광주를 살펴보면, 동구에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남구에는 광주기독병원, 광산구에는 광주보훈병원과 첨단종합병원이 있다. 서구와 북구에만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없다. 2개 권역에 얼마일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광주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남대병원도 타 지역 이전 논의에 들어가면서 남구와 광산구, 나주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지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만약 전남대병원이 남구나 광산구, 나주시 중 한 곳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광주의료원을 삼급 종합병원이 없는 서구나 북구에 설립하는 것을 더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원은 그 목적상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의료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들이 의료원을 쉽게 이용하려면 버스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나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부지 선정의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광주와 인접한 담양과 장성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 취약 지역'이다. 전남의 공공의료원은 목포와 순천, 강진에 있다. 광주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것이다. 그만큼 담양과 장성은 의료서비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의료원은 광주시민이 주이용 대상이겠지만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전남 북부권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광주의료원 설립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설립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단순한 권역 논리에 한정 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접근성과 의료 서비스 이용 격차, 앞으로의 의료 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이유는 광주시민의 염원인 광주의료원이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광주 인구는 도심 중심에서 외곽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전남 지역과 광역 교통 체계로 단일 생활권이 되어 가고 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놓고 잠시 숨을 고르고 멀리 보기 위해 지금이라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화를 통해 광주의료원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무등산 자락 난개발 방지 청신호 켜졌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시가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던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사들여 공공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아울러 앞으로 광주에서는 30층 이상 아파트나 40층 이상 건물 신축은 지을 수 없게 된다. 옛그제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광주시가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범시민 운동에 앞장서는 한편 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정책협의회는 신양파크호텔 부지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사업자에게 철저히 도록 하고 광주시가 이를 매입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에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시에서 발표한 대로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 갈등과 논란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동안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80세대 규모 연립주택을 짓기 위한 개발 절차가 추진되자 환경단체 등에서는 무등산 자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 매입비를 결정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부지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광주시가 100~200억 원대에 달하는 매입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 해당 부지의 적정 매입가는 광주시와 사업자 양측에서 추천한 감정평가 기관이 산출한 평균치가 될 전망이다. 어찌 됐든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던 옛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시가 직접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무등산 일대가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광주시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계상황에 이른 방역 공무원 배려 절실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월 평균 90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비상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끊이지 이어지는 바람에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공개한 '광주 서구보건소 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투입된 직원들의 한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9.7시간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검체 채취를 위해 밤낮없이 운영되는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거나 확진자의 동선 파악 업무를 맡고 있는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들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해 한 달 평균 146시간, 연간 1752시간의 가장 많은 초과근무를 기록했다. 하루 여덟 시간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 연간

219일을 더 일한 셈이다.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다른 자치구 보건소 공무원들도 한 달 평균 80시간대, 많을 때는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초과근무가 밤낮도록 반복되다 보니 과로에 시달리는 방역 담당 공무원들은 날마다 녹초가 되어 퇴근하기 일췌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진단 검사를 비롯해 역학조사, 모니터링, 감염자 이송, 자가 격리 관리까지 코로나19 대응 전반을 책임지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고된 업무 일정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책임감과 사명감만으로 현재 상황을 버텨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 방역의 참전원 보건소 인력의 순환 근무와 휴면 및 조직 보강을 서둘러 지속 가능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나는 하나의 행성에 온전히 혼자 남은 최초의 인간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화성 '아레스3' 탐험대원 중 한 명이다.

그는 모래 폭풍이 우주선의 한계 허용치보다 강해지면서 탐험대가 급히 탈출하는 과정에서 조난을 당한다. 부상을 입었지만 극적으로 생존한 이 대원(마크 와트니)은 극한 조건의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찾아낸다. 다행히 그는 식물학자이자 기계공학자였다. 기지에 남아 있는 보급품과 자신의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 가장 시급한 산소

‘붉은 행성’

현재 화성 궤도에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중국·인도·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각각 쏘아 올린 탐사선이 돌고 있다. 이러한 여러 나라의 화성 탐사는 15~17세기 포르투갈·스페인 등이 경쟁적으로 신항로 개척에 나섰던 '대항해 시대'(The Age of Discovery)를 연상시킨다. 한국 역시 공상 같지만 언젠가는 우주 탐사의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오늘도 날이 저물면 서쪽 바하는 황소자리에서 붉게 빛나는 화성을 찾아 봐야겠다.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기 고



허정
에덴병원장·전 광주시 의사회장

최근 지역 의료계의 관심사 중 하나인 광주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이 없어 오래 전부터 설립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던 광주의료원이 드디어 수면 위로 나오게 된 것으로,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광주의료원이 설립되면 지난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광주에서 확진자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자 강진의료원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광주시민이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다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광주의료원 설립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성 강화 그리고 주 수혜 대상인 의료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인 대전과 울산에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설립 과정을 공론화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광주의료원 설립 과정은 너무나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 의료계 일각에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